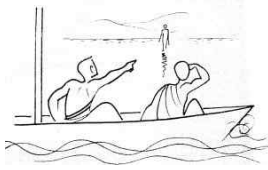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마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헬레스틴(투스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5,27ㄴ-32.40ㄴ-41	제2독서:	묵시 5,11-14	복음:	요한 21,1-19
가톨릭 성가	입당: 135	봉헌: 138	성체: 466	파견: 129	

◆ 화답송



(후렴)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 나 이 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알렐루야.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과자를 먹던 아이에게서 과자를 빼앗자 아이가 울기 시작한다.
울던 아이에게 더 맛있는 과자를 주니 금세 그 과자 맛에 빠져버린다. 장난기가 발동해 그 과자를 전의 것으로 대체 했더니 조금 전보다 더 큰소리로 운다. ‘너석, 그 찰나에 뭐 그리 대단한 맛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혼란에 빠진 채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3년의 시간만 잊는다면 그들 인생에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이상하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었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한 순간들이었기에 그곳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그물질은 절대로 그전의 것과 같을 수 없었다. 설령 매일매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지라도.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예수님과 멀어진다. 신자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일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즐기고 어울리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니.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 새로운 삶을 계획했던 환희, 하느님 앞에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던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려했고, 사랑을 실천하려 했던 열정과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돌아가 봤자 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달콤한 맛을 체험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

성모 성월 (성모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고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미 사 봉 헌

● 연미사

민병택 베드로
황정선 크리스티나, 이선우 다니엘
이영우, 이태모
정우득

유민규
박혜경
송준호

봉헌

가족, 이경자 올리안나
이혜원 엘리사벳
이상홍 스테파노
성모회, 유정옥, 윤요한 외 5인,
이경자(울), 민완준 가족
유 아셀라
박순 로사
송재숙 크리스티나

● 생미사

김응천 필립보
엄창석 요한, 엄윤민 마태오
바다의 별 Pr 단원
서정우 세실리아
이정현 헬레나
성령기도회
민사롱가브리엘, 민사현베드로

박신희 리나
엄창자 요셉피나
김기례 레지나
이승재, 김윤수
가족
성령기도회
가족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5월 5일	주세정 레이첼	정동주 유스토	박신희 리나	한창희 바로로	홍지혜 클로틸다	김미화 김은희	김가연 장동엽	유기호 김영숙 김은희 이지연 유정옥 장혜윤 이정현 진문자
5월 12일	차지욱 안토니오	정희연 첼리나	이셋별 요안나 F	임유진 라차로	이진형 베드로	이경자(울) 유정옥	오윤서 황예슬	민완준 민덕미 김은희 백승훈 김영숙 박신희 홍민철 조리디아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 - 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방인쇄 KOR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울뜨레아**가 11시,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학부모회**가 11시, 교육관 3호실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5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1,8,22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19일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2019년 제21회 나눔의 바자회

일정 : 5월 19일(부활 제5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Broadway Btn31/32st, Korea Town
문의 : 추진위원장 유기호 베네딕도 (914.787.0508)
후원금 접수 : 친교실 재무팀 데스크

☆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판매용 헌 옷은 깨끗이 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 5월 청년 미사 날짜 변경

바자회 준비 관계로, **5월 18일(토) 저녁 6시에 봉헌**됩니다.

➢ 바자회 추진 위원 회의

일시 : 5월 12일(주일) 11시 / 장소 : 교육관 3층 5호실

➢ 제 14회 성 프란치스코 집 바자회

일시 : 오늘 오전 9시 ~ 오후 4시
(오후 5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장소 :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 제 73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7시~27일(월) 오후 5시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문의 및 신청 :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부부
(646.201.0175 / 646.808.7322)

➢ 미동북부 제 24차 탈출기 연수 신청

일시 : 6월 7일(금)~9일(주일) / 장소 : 뉴튼 수도원
신청 기간 : 5월 11일까지
대상 : 청년성서모임 탈출기 그룹공부를 마친 그룹원
신청서 : <https://forms.gle/ccx2aoxkynBeDkN16>
문의 : 김경민 여네스트 수녀님 201-937-6622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5.2 아타나시오 5.3 필립보 5.3 (작은)야고보
5.14 마티아 5.22 리따 5.26 필립보네리 5.31 엘리사벳

➢ 5월 '공동 묵주기도 봉헌' 안내

가톨릭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정해서 신자들이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과 함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보다 더 다지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묵주기도와 더 친근해지길 기대하며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작 : 오전 9시, 윗 성당

날짜	주관단체	묵주 기도
오늘	울뜨레아	환희의 신비
12일	성모회 & 요셉회	빛의 신비
19일	꾸리아	고통의 신비
26일	성령기도회 & 양업회	영광의 신비

☆방법 : 묵주의 기도 3단까지 봉헌한 후 성모성월기도로 마칩니다. 나머지 2단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 2019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파티마, 프랑스 루르드(3개국)"

일시 : 2019년 9월9일(월) - 9월19일(목)(10박 11일)
순례지 : 마드리드-톨레도-아빌라-알바 데 토르메스-
살라망카-파티마-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레온-
로올라-루르드-사라고사-몬세라트-바르셀로나
인솔사제 : 김성인 미카엘
참가경비 : \$ 2,900 예약금 \$500

➢ 양업회 본당기금 마련 물품판매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 다미아노 홀 입구
품목 : 다시마, 김, 미역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680
감사헌금	\$ 0
합 계	\$ 1,680

❖ 교무료 :

조동균 오인희 강건대 강호영 김윤정 박정자 박아영
정희자 김승범 민완준 강영옥 고은경 윤동진 유정옥

❖ 성모의 밤 꽃 봉헌 : \$ 660

김승범 울뜨레아 이민영 이신환 학부모회 하늘처럼성가대
양업회 청년찬양팀 처음처럼성가대 김영빈 노혜영
꾸리아 예수성가정회 박종옥 황인자

“성경 맛들이기” - 탈출기

탈출기란

창세기에 이어 구약성경에서 두 번 째로 나오는 성경이다.

이집트에 와 사는 성조 야곱의 자손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즉, 야훼 하느님이 모세를 시켜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이끄시며,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어 그들이 지켜야 할 각종 법률과 규정을 알려주신 내용이 담겨 있다.

· ‘탈출기’는 본래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한데 묶여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사람들이 비슷한 분량의 다섯 두루마리로 나누어 보관하면서 ‘오경’이라 부르게 되었다. 탈출기는 오경의 둘째 권이다.

‘탈출기’라는 성경 이름

히브리어 이름은, 그 책의 첫 단어로 책 이름을 정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브엘레 쉬모트’(שְׁמוֹת וְאַלְהָ : 그리고 이름은 다음과 같다)이며,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70인역 성경에서는, 책의 내용에 따라 ‘엑소더스(탈출)라는 이름을 붙였다.

· 우리말 공동번역 성경 이름 ‘출애굽기’는 중국어 성경 이름 ‘出埃及記’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에서, ‘애굽’은 이집트의 한자식 표현이다.

저자

오랫동안 많은 이들은 탈출기가 포함된 오경 전체를 모세가 직접 썼다고 믿어 왔으나, 학자들은 탈출기를 포함하여, 오경의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이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쓰이고 정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집필 연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탈출’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원전 10세기 이후부터 기록되었고, 바빌론 유배(기원전 6세기경)후에 기록들이 수집, 정리되어 오경으로 묶였다고 본다.

집필 목적

기원전 13세기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일어났던 일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책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집트 탈출 사건을 통해 체험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계약을 통해, 하느님께서 알려 주신 율법을 통해 영원히 계속된다는 그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때문에 탈출기는 구약의 핵심이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구원의 책이라고 한다.

구약의 이집트 탈출 사건은 구약 백성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고,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예표이다. 따라서 탈출기를 모르면 구약도 신약도 이해할 수 없다.

“엑소더스”란 단순히 기원전 1,300년경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만을 뜻하지 않고, 인간 삶의 여정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탈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탈출하여 어디로 진입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역사적 배경

이집트 제 19왕조 특히 세토스 1세와 라므세스 2세 치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2000년기에 아시아인들이 정부 요직에 올랐다는 기록이 나온다. 즉 기원전 1720년경 히소스(Hyksos)족이 이집트를 침공하여 통치자들을 몰아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이주한 것도 이 때일 것이며 기근에 못이긴 야곱 일가는 히소스 족이 이동할 때 그 틈에 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이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았다는 요셉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다.

기원전 1600년 직후에 이집트인의 혁명이 일어났고 기원전 1550년경 외국인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히소스 족을 추방한 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제 18·19왕조 때 이집트의 부흥정책으로 거대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히소스 족과 같은 셈족인 히브리인들을 징발하고 탄압했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은 탈출기 서장의 시대 배경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집트 탈출 시기를 라므세스 2세(기원전 1290-1224)의 시기, 기원전 1250년경으로 본다.